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외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10호)

○ 2026. 9. 3.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07.24.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08.18.

다. 상 정 일 자 : 2026.09.02.~09.03.(2일)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회 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 ▶ **문화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자 : 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 이강이)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 **밝은미래국 소관** (제안설명자 :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 **주민생활국 소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윤형기)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자 : 홍보담당관 송준우)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김성훈)

▶ 생략 :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감사담당관

질> 결산서 I p.133, 2025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보다 증가했으나, 지출액과 집행률은 오히려 감소했음. 감사 횟수 감소 등 감사업무 추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집행률이 낮아진 사유는 무엇인지?

답> 감사담당관 예산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유보액 대상 경상경비가 전체 예산의 84.2%를 차지하고 있음. 예산 절감을 위해 유보액을 설정하면서 불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실질적인 감사업무 추진에는 영향이 없었음.

질> 결산서 I p.133, 2024년도 시도비 보조금 약270만원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연계 사업은 무엇이며, 2025년도 재원 종료에 따라 영향을 받은 사업이 있는지?

답> 해당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에 관련한 사항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나 행정 오류를 통보받아 관리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것임. 2025년도 재원 종료에 따라 영향을 받은 사업은 없었음.

■ 홍보담당관

질> 결산서 I p.135,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사업의 대부분이 일간신문 통·반장에게 신문을 구독해주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적지 않은 예산 규모인데 최근에는 다양한 홍보매체가 증가함에도 신문구독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 통·반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구정·시정 소식 및 생활정보 등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해당 예산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현재 25개 자치구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예산이 타자치구에 비해 특별히 많은 수준은 아님. 다만 홍보 매체가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타 자치구 사례 등을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홍보예산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질> 결산서 I p. 138,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사업은 총 예산 5억 2천만원 중 약 3억 5천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약 30%에 달함. 특히 국제여비는 800만원 전액이 불용됐고, 외빈 초청 여비도 4천만원 중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이 약 75.2%로 나타남. 호주 퍼스시와의 교류 중단이나 공무국외출장 취소 등은 회계연도 중 또는 하반기 추경 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부서의견은?

답>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예산 중 국외여비와 국제여비에
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음. 2025년도 국외여비 약2억 5,800만원
중 약 1억원을 집행하지 못했음. 당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국
내 정치적 상황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 였으
며, 하반기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감추경까지 진행하지 못한 측
면이 있음. 향후 사전에보다 면밀히 파악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
록 집행하겠음.

질> 결산서 I p.138, 예산 이용이 약25억원 발생했는데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답> 청소행정과 환경공무원의 통상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변경되었음.
기존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당 판결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과거 지급하지
못했던 지연임금을 포함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 발생했
고, 청소행정과의 인력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지원과 인력운
영비 예산 25억원을 이용한 것임.

[문화관광과]

질> 결산서 I p.140, 문화관광과 성과지표에 외국인 방문자 수가 있는데,
관광특구에서 추진한 각종 프로그램과 외국인 방문자 수 사이에 어
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 방문자
수 400만명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답>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 때문에 방문한 인원인지, 자연적으로 유입된 인원인지 일일이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방문자 수를 측정하고 있음. 관광데이터랩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 특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방문자 수를 측정함. 외국인이 국내 통신사의 로밍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일상 생활권의 거주·통근·통학 등을 벗어나 관광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 방문자 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성과지표에 활용하고 있음.

[자치행정과]

질> 결산서Ⅱ p.193, 자치회관 프로그램 만족도와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은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반딧불센터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음. 공구대여,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육아 공간 이용 등은 이용 실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 반딧불센터 이용인원 및 운영실적은 파악하고 있음. 다만 2025년 성과지표를 두가지 항목으로 설정하면서 반딧불센터 관련 지표가 포함되지 않았음. 서초구에는 총7개소의 반딧불센터가 있으며, 센터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용실적에 차이가 있음. 2025년 기준 서초3동의 경우 커뮤니티 이용자가 1,396명, 무인택배 이용이 5,769건, 공구대여가 52건 정도이며, 센터별로 공구은행, 무인택배, 공동

육아, 커뮤니티 이용실적을 각각 관리하고 있음. 향후 성과지표에 반딧불센터 운영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체육진흥과]

질> 결산서 I p.146,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추진 주체가 SH공사로 최종 결정된 협의가 언제 완료되었는지? 추경 전이라면 협의 완료 이후 감액조정을 검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 당초 내곡생활체육시설 관련 예산 2억원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편성한 것임. SH공사가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현재 파크골프장 앞 신원동 494-1번지로 부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함.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어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SH공사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에서 편성한 2억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에 불용 처리함

[오-케이민원센터]

질> 결산서 I p.149, 맞춤형민원에서 스마트민원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한 사항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과 어르신 등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이 갖춰진 기기

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음. 2025년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교체대상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여, 구비 중 5,500만원을 전용하고 1,700만원을 사업 변경하여 총7,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2025년에 무인민원발급기 20대를 교체하였음.

■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

질> 결산서 I p.151, ‘양재ICT혁신지구 조성사업’은 예산편성액 15억 4,320만 5천원 중 지출액이 5억 9,782만원, 사고이월액 8,48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억 6,057만 9천원으로 불용률이 55.8%에 달함. 당초 양재천 AI스타트업 파크를 신축하려던 계획이 강남 데이터센터 내 공간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설계용역비만 집행하고 상당액이 불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계획 변경 과정과 불용 사유는 무엇인지?

답> 당초 우면동 양재천 제방도로 부지에 ‘양재천 청년AI스타트업 파크’를 신축할 계획으로 시설비를 편성했음. 그러나 2024년 특구 지정 이후 새로 설계하고 신축할 경우 사업완료까지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이 과정에서 강남데이터센터 인근에 신축 건물이 마련되면서 해당 공간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간단한 리모델링을 거쳐 기업들이 입주하여 현재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음. 다만 기존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임차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관련 용역비를 제외한 예산은 부득이 불용처리 하게 되었음.

추가 의견> 사업계획 변경 자체는 예산과 건립 부담을 줄인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나, 변경 과정에서 약 9억원의 이월 예산 중 약 8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사업계획 변경이 결정되었다면 추경 단계에서 신속하게 감액하여 다른 복지나 소상공인 일자리 사업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보임.

[아동청년과]

질> 결산서 I p.154, 2024회계연도에 이미 반납 결산한 구립 유스센터 집행잔액이 2025년도 상반기 추경세입에 다시 중복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이지? 전년도 위탁사업 정산액의 수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답> 민간위탁 운영되는 유스센터는 사업 종료 후 결산을 통해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 전에 이미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가 이루어 졌으나, 이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미 납부된 금액을 다시 세입으로 편성하면서 중복 편성된 것임. 향후 결산 및 추경 편성 시 수납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질> 결산서 I p.154, 청년센터 참여자 수의 성과목표가 1,000명인데 실제 실적은 5,700여명으로 목표를 크게 초과하였음. 당초 예상보다 이용자가 급증한 사유는 무엇이며, 목표설정이 적정했는지?

답> 청년센터 성과목표는 2024년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2025년도 목표를 기존 500명에서 1,000명으로 상향하였음. 이후 기존 서울청년센터 서초오랑의 업무가 서초청년센터로 이관되면서 이용자 및 사업이 증가하고 홈페이지 가입자도 크게 늘어나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되었음. 또한 기존에는 서초구 거주자 또는 관내 직장인 중심으로 이용하였으나, 서울시의 시비 지원에 따라 인근 강남구 등 타 지역 청년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2026년도 목표를 8,000명으로 상향 설정하였음.

[교육지원과]

질> 결산서 I p.157, 2024년도에는 ‘책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2025년도에는 ‘서초 책 있는 거리 조성 사업’에 각각 예산을 전용하여 도서관 운영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보임. 사업의 큰 틀은 유사하더라도 재원의 성격이 다른 만큼 이러한 전용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답> 과거 2년동안 해당 사업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는데, 당시에는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축제 관련 행사를 수행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임. 이후 T/F팀이 구성되고 문화재단의 도서관장도 임명되면서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특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관 주도 행사가 아니라 관내 도서관과의 프로그램 연계 및 전문적인 기획이 중요한 사업이고, 2025년 신설한 ‘여행하는 서재’의 호응도 높았음. 이에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했음. 2026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

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예산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질> 그동안 아버지센터 위탁기관의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답> 과거에는 아버지센터에 자본잠식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이 정상화되어 자본잠식 상태는 해소되었음. 기존에는 중년 남성 아버지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가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가족단위 참여자를 확대했고, 이에 따라 수강료 수입이 증가했음. 그 결과 2023년까지 마이너스였던 자본총계가 2024년에는 플러스로 전환되었음.

[기후환경과]

질> 결산서 I p.160,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의 2025년도 집행률이 약25%에 불과하고 상당한 금액이 불용되었는데, 사전 수요조사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답> 본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주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음.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실제 신청수요가 적었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필요 등 복잡한 사전 절차가 신청의 제약요건으로 적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향후에는 공동주택별 사전 수요조사와 실제 사업가능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서울시에도 실제 수요를 반영한 보조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할 예정임.

[스마트도시과]

질> 결산서 I p.163,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사업’의 2025년도 집행률이 최근 3년중 가장 저조하고 불용액도 증가했는데 그 원인 무엇인지?

답>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사업의 집행률이 낮아진 주요 원인은 국제 스마트도시 표준 인증심사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임. 당초 국제 인증심사를 위해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구표준협회 측에서 심사비 및 인증마크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함에 따라 타 지자체의 인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국제인증심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질> >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답> 국제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마크를 활용하여 서초구의 스마트도시 위상을 홍보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 사용료만 약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는 국내 스마트도시 인증도 추진하고 있어 국제 인증까지 받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음.

질> > 국제 스마트도시 인증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6월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감액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 당초에는 국제 인증을 계속 추진하고자 했으나 심사기관에서 인증마크 사용료 등이 크게 인상되면서 최종적으로 미추진 결정을 하

게 되었음. 또한 타 지자체의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관련 기관의 회신도 늦어져 감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지 못했음. 미추진 결정과 관련한 회신은 10월경 받아, 결정 시점이 늦어져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음.

■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질> 결산서 I p.167, '서리풀샘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 '서리풀 샘 사업'은 2019년에 시작되었고, 서울시 사업인 '서울런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되면서 사업구조가 유사한 부분이 발생하였음. '서리풀 샘'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서울런'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보면 '서리풀 샘' 대상자 중 '서울런' 대상자 상당 부분 중복되는 상황이었음. 이에 따라 대상자들이 서울시비로 운영되는 서울런 사업으로 연계·이동하면서 약2억 2천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게 되었음.

질> 결산서 I p.68, '공유재산 수익금' 약5억 8천만원의 매각대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귀속될 예정인데, 보육시설인 성심원을 매각한 것은 실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지?

답> 성심원은 아동청년과 소관 사업이었으나, 시설 매각 이후 매각대금

을 기금으로 전출하면서 결산상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잡히게 된 사항임. 성심원의 기능은 수지 성심원으로 이전하여 서초구의 위탁 시설로 운영 중임.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회복지과]

질> 결산서 I p.172,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의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인지, 신청자가 없었던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근거는?

답> 2025년 10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한 후 민간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면 50만원, 1년 이상 유지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어 2025년에는 전액 불용되었고, 올해는 1명이 대상자로 확인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자활 참여자들의 탈수급 자체가 쉽지않고, 민간 취업·창업 및 장기간 고용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어 지원에 애로가 있음. 대상자들이 지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여성보육과]

질> 결산서 I p.173, 감사의견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

만, 2025년도에는 추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보조금 초과집행이 발생한 사유는?

답> 보조금은 통상 매월 변경내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2025년에는 5월 추경 이후 추가 추경이 없어 예산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특히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의 경우 담당자 4명 이상이 공동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보조금 잔액 관리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으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매월 변경내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12월에 감액 내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음. 올해부터는 매월 사업별 수요와 집행액을 조사·검증하여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겠음.

질> 결산서 I p.30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보육기금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확충 시 시설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인건비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까지 고려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환경개선비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서초 특화사업 7개를 추진하고 있음.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약 11억 3천만원, 보육정책 등 특화사업에는 약 26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음.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육기금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서초구만의 특화된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기금을 활용하고 있음.

[어르신행복과]

질> 결산서 I p.179,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돌봄봉사단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돌발 상황에 어려운 한계도 있는데, 이를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돌봄봉사단을 구성하여 요양 어르신의 말벗, 외출동행, 간단한 집 정리 등을 지원하고자 했음. 그러나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저조했고, 어르신들도 가족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음. 이에 따라 올해는 요양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힐링 프로그램 및 여행 지운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초돌봄복지재단에 대해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청소행정과]

질> 결산서 I p.3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은 2013년 이후 추가 징수없이 이자수입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2024년 실제수납액 약279억원에서 2025년 약290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그 원인과 기금 운용 방식은 무엇인지? 효율적인 운용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은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조성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우면2국민임대주택 및 2011년 보금자리주택조성 당시 마련된 금액임. 2024년에는 정기예금 이율이 4.25%였으나, 2025년에는 3.26%하락하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음. 현재 기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해당 기금은 2026년 원지동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설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 총 괄

[전체부서]

질> 사회·경제·환경과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주민들의 행정 수요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 조직 역시 과거의 업무 방식과 관행에서 벗어나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운용 역시 기존의 방식과 관행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재정 여건에 맞게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답> 이번 결산 과정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의 적정성, 수요예측, 사업의 공급 측면, 기금운용 등 기존의 방식과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사업에는 재원을 집중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조정하는 등 예산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승인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